

2월 4주차 Q&A — 케빈 워시 지명 시나리오 & 금과 비트코인의 경쟁

2026-02-23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2_03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일곱 번째 Q&A — 트럼프가 매파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데는 11/3 중간선거 사활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 있다. 케빈 워시 = 하이브리드(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) → FOMC 12명을 설득하기 더 유리한 매력적 선동주의자. 트럼프·베센트 책사의 큰 그림은 2~4월 증시 방치 → 5~10월 재정 지출 + 6월 케빈 워시 금리 인하 (플랜 A) 또는 단기채 매입 (플랜 B) → 10월 말 가장 뜨거운 증시. 위험은 인플레이 재발 + 채권 시장 반란 + 선거전 스마트 머니 매도.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인 1명만 주장하는 황당론 "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". 강사 단호 반박 — 마이클 세일러도 "비트코인+금 공존", 신시아 루미스도 "금 재평가" 입장이지 "폐지"는 X. 핵심 시각 — 글로벌 자산(금·은 6,000년) vs 로컬 자산(원화·한국 부동산) 분류. 한 나라가 글로벌 자산을 마음대로 폐지 못함 (1720 프랑스 사례 — 영국에 패권 내줌). 비트코인은 트럼프 2025 제도권 편입으로 글로벌 100→90점, 미국 유동성 노예로 변질. 4년 차 상승 진입 — 에브리싱 랠리 끝, 자산 간 분화 본격. 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이 그 신호.

01 핵심 골격

- 1 케빈 워시 지명 = 11/3 중간선거 사활 위한 치밀 계산
- 2 1월 폭등 X / 10~11월 초까지 상승 ↑이 정치적 목표
- 3 케빈 워시 하이브리드 — 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 (매력적 선동주의자)
- 4 FOMC 12명 중 1표 → 설득력 위해 "가장 매파" 임명
- 5 플랜 A — 6월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추진

- 6 플랜 B — 단기채(레포) 매입 (워시 철학 우회로)

- 7 베센트 책사 큰 그림 — 2~4월 방치 / 5~10월 부양 / 10월 말 정점

- 8 위험 — 인플레이 재발 / 채권 시장 반란 / 선거전 스마트 머니 매도

- 9 "미국 금 버리고 비트코인" = 한국인 1명만 주장 (강사 단호 반박)

- 10 마이클 세일러도 "비트코인+금 공존" / 신시아 루미스도 "금 재평가"

- 11 포트nox 8천 톤 — 1~2천 톤 비어도 세계 최고

- 12 글로벌 자산(금·은·달러) vs 로컬 자산(원화·한국 부동산)

- 13 금·은 6,000년 vs 달러 지폐 165년 / 달러 패권 80년

- 14 1720 프랑스 — 금 불법화로 영국에 패권 내줌

- 15 비트코인 100→90점 글로벌 — 미국 유동성 노예 변질

- 16 4년 차 상승 — 에브리싱 랠리 끝, 자산 간 분화 본격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3)

케빈 워시 청문회 4/21 + 5월 confirmation (강의 § 4 시간 연장)

4/21 청문회 → 4/29 상원 위원회 R 13 vs D 11 통과 → 5/11 cloture 49-44 통과 → 5월 11일 주 최종 confirmation 예상. Powell 임기 5/15 만료에 맞춤.

강사 "5월 취임 불확실" 진단이 본격 진행 검증. 워시는 청문회에서 "트럼프 sock puppet 안 되겠다" + "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개혁" 발언 — 강사 "하이브리드" 진단과 정합.

출처 · aljazeera.com

비트코인 5/5-6 \$81~\$82K (1월 \$77K → 2월 \$60K → 4월 회복) (강의 § 14 각도 확장)

2026 1월 약 \$77K 추락 → 2월 \$60K 저점 → 4월 회복 \$80K → 5/5-6 \$81,286~\$82,320. ETF inflows로 institutional 매수 회복.

강의 시점 "비트코인 반토막" 표현 정량 검증. 강사가 짚은 "미국 유동성 노예" 메커니즘 정확 발현 — 미국 시장 분위기에 좌우.

출처 · fortune.com

마이클 세일러 "Digital vs Analog Capital" — 공존 입장 (강의 § 9 검증)

마이클 세일러 2026년 발언 — "Bitcoin은 digital capital, gold는 analog capital".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금 시총 추월 전망. 다만 "금 폐지" 주장은 X.

강사 진단 "마이클 세일러도 공존 입장, 금 폐지 X" 검증. 신시아 루미스도 "금 재평가" 입장 — "폐지" X. "한 국민 1명만 주장"의 황당함을 정량 검증.

출처 · stocktwits.com

드러켄밀러 Q4 2025 13F — 골드 25~30% + 원자재 회전 (강의 § 16 사례 후속)

Druckenmiller Q4 2025 13F (2026-02-17 SEC 제출): Meta/Arm/MongoDB/SanDisk 전량 청산 → Brazil + 원자재 + 항공 회전. 25~30% 골드 + 20~25% 에너지. "미국 증시 10년 stagflation (1966~1982 평행)" 가설.

강사가 짚은 "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" 정확 정합. "4년 차 상승 = 에브리싱 랠리 끝, 자산 간 분화 본격" 진단의 정확 검증.

출처 · navnoorbawa.substack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01 케빈 워시 6월 FOMC 흐름 관찰 — 강의 § 6 명시. 플랜 A(금리 인하) vs 플랜 B(단기채 매입) 어느 쪽이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기.

02 **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시각 정렬** — 강의 § 11 명시. 원화는 로컬, 금·은은 글로벌. 한국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산 분류 정확.

03 **4년 차 상승 — 자산 간 분화 흐름 들여다보기** — 강의 § 16 명시. 에브리싱 랠리 끝. 금 vs 비트코인 + 미국 증시 종목 분화 본격.

케빈 워시 지명 — 트럼프 하이브리드 전략

주가 올리는 두 가지 방법 — 금리 인하 vs 실적 성장

2026년 승리 도박 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

미국 준비자산 금→비트 변경 주장 검증

비트코인 예찬론자들의 주장 (반박)

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분류

금과 은 — 6천 년 화폐 역사

비트코인은 미국 유동성의 노예

Fanding @kpunch · qna_part2_03